
전북
회화
창간호
1993.10.23(토)
통권 제1호
전북회화회발행
1992號



표지 작품 : 過去와 未來, 그 時間속에서……, 50 × 80㎝, 장지에 혼합재료, 1992

표지작가 : 이 철 규 (李喆奎 : 1960~)

- 전주우석대학 동양화과 및 홍익대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2회 및 그룹전 40여회 출품
- 現. 전북회화회, 시공회, 우묵회 회원, 원광대, 우석대 강사

여기 모인 전북회화회 회원들은 그들가슴속에, 혈관속에 전북의 기상과 분노를 그리고 선험적 예술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시대의 첨병들이다.

東으로 노령산맥의 큰 줄기를 치고 앉은 전북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크고 넉넉한 여유와 기상을 닮았다. 거기서 지혜와 용기 그리고 분노를 익혀온 전북인은 동학의 정신을 키웠는지 모른다.

西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곡창, 만경벌에서 풍요를 바탕으로 한 풍류와 낭만을 가꾸어 왔다. 전북예술은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그대로 소화한 상충과 조화의 멋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편제와 서편제로 구분하여 발전되어진 판소리의 고장이요, 꺾이지 않은 인간정신의 숭고미를 극대화시킨 춘향전은 지리산 자락에서 일구고, 작은 고장임에도 끊임없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문화의 모습에서 전북인들의 본능적 예술애호와 타고난 예술적 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인들 삶 구석구석이 멋과 맛의 예술적 정서가 베어나지 않은 곳이없다.

훌륭한 전통은 위대한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면, 전북미술의 앞날을 조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않다.

여기 모인 전북회화회 회원들은 그들 가슴속에, 혈관속에 전북의 기상과 분노를 그리고 先驗的 예술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시대의 尖兵들이다. 우리의 모임은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다.

전통과 오늘,

우리를 감싸고 머리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조여드는 예사롭지 않은 전통과 오늘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민족에게 던져진 숙명인지도 모른다. 또한 전북은 우리에게 또다른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전북회화회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할 것이며, 더욱이 우리의 현실 곧 전북회화의 새로운 형상을 위하여 함께 할 것이다. 전북회화

전북 회화

전북 회화회는 전북 지역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현재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철규 방정엽 이철량 지민수 임소형 정문배 조양현 김차경 조현동 고재명
문 순 최전숙 정미현 유선영 전양기 김경희 안순금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구성 – 고재명, 김자경, 성민홍, 유선영, 이영현, 이철규, 이철량, 이희춘, 정미현

5. 31~ 6. 13 **중앙시장사람들展**, – 얼화랑 – 주제전

6. 21 신입회원 가입 – 박인현, 조돈구

12. 29 신입회원 가입 – 김경운, 김현경, 문순, 지민수, 최전숙

1991. 1. 4~ 5 스케치 여행 : 해남 대흥사

3. 9~ 3. 14 **전북회화회展**, – 전북예술회관 – 정기전

6. 8~ 6. 20 **전북의 산하展**, – 우진문화공간 – 주제전

6. 15 전북의 산하전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 – 전시장

8. 31 하계 세미나 – 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 B. Feildman저, 김춘일역

사회 : 이철량

발제 : 지민수, 김현경, 문순, 고재명

12. 14 정기총회, 총무 – 이영현

신입회원 가입 – 김경희, 박양수, 안순금, 조현동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 – 대성화랑 – 정기전

10. 21 정기모임 – 총무 고재명 선출

12. 1~ 7 **교동의 표정展**, – 얼화랑 – 주제전

12 회원탈퇴 – 김경운, 박양수, 박인현, 성민홍, 이영현, 이철량, 이희춘, 조돈구

1993. 3 신입회원 가입 – 방정엽,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 조양현

5. 14~20 **전북회화회展**, – 우진문화 공간 – 정기전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 전시장

6. 5 신입회원 가입 – 이철량

8. 하계 스케치 여행 : 군산 개야도

9. 17~26 **전북회화회展**, – 정갤러리 – 중간전시

전북회화회창립전 : 중앙시장사람들展

— 1990. 5. 31~6. 13 얼화랑 —

움직이는 시장통해 삶의본질 표출

全北繪畫會 창립전「중앙시장 사람들전」

우리 지역 한국화 발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될 全北繪畫會 창립전인「중앙시장 사람들전」이 오는 6일까지 얼화랑(全州시完山구中央동)에서 계속된다.

이번「중앙시장 사람들전」은 지난 1월에 결성된 全北회화회가 全州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삶의 형상들을 엮은 주제전으로 각기 개성이 뚜렷한 작가들이 하나의 공동주제를 놓고 의식을 표출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지 중앙시장의 풋풋한 생동감, 물건과 사람이 뒤엉킨 혼잡, 질퍽거리는 삶의 현장 등 만을 그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의 독특한 환경구조와 시장적인 속성에서 빚어낸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들추어 내고 있다.

작은 골목으로 이어지면서 구석마다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가난과 혼잡, 삶에 지친 피곤과 한스러움이 뒤엉켜 돌아가는 시장 모습, 그리고 이러

今週의 하이라이트

한 중앙시장의 애환을 조용히 감싸고 있는 중앙성당, 또 처절한 삶의 현장을 길하나로 마주하고 우뚝 솟아있는 초현대식 백화점과 호텔.

이들은 이처럼 독특한 중앙시장의 환경구조를 이지역 문화의 총체적 모습으로 파악하는 한편 물질과 정신, 현실과 희망, 좌절과 원망으로 뒤범벅된 우리 삶의 진실을 확인시켜 준다.

全北회화회는 동문중심의 편협된 테두리에서 탈구적인 자세를 갖지 못했던 도내 한국화단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모임으로 한국화의 기반 조성과 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에 큰 몫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전과 주제전 등을 통해 작가적 기질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全北회화회 참여작가는 이철량 고재명 김자경 성민흥 유선영 이영현 이철규 이희춘 정미현씨 등이다.

전라일보 1990. 6. 2(토)



◇全北회화창립전「중앙시장 사람들」에 출품될 한작품「무제」.

개성있는 젊은 작가들주축 全北한국화에 새바람기대

전북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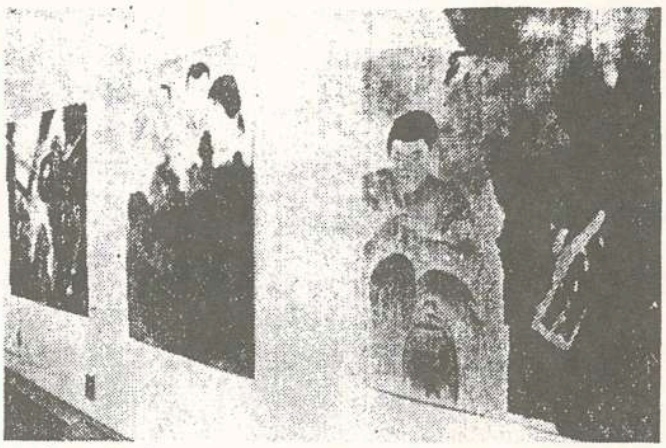
全北 繪畫會 창립전「중앙시장 사람들」

전북지역 한국화부문에 새로움을 예고하는 젊은 세대들의 그룹이 창립, 첫작품전을 갖고 있다.

6일까지 全州 얼화랑에서 열리고 있는「全北繪畫會」의 창립전은 全北에서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일어온 한국화의 현대화작업에 보다 진전한 가능성을 안겨주는 시도들이 젊은 세대들의 의식을 밑도있게 표출시킴으로써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창립전은 지역사람들의 총체적 삶과 문화가 응집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주제전을 기획, 한가지의 소재와 주제에 대해 작가들이 공유하는 의식이나 때로는 다양한 기법으로 표출되는 개성있는 이미지들이 참신한 조형언어로 전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활발한 창작활동과 한국화의 현대화작업에 전념해온 20~30대 작가들이 주축이된「全北繪畫會」는 지난 1월에 첫자리를 가진 이후 3월 주제전을 기획, 이번 작품전을 갖게 됐다.



◇全北회화회 창립전이 6일까지 全州 얼화랑서 열리고 있다.



◇성민흥作「매매하는 상인들」

노점상 哀歡을 날카롭게 투영

韓國畫의 현대화 可能性 보여

◇「중앙시장 사람들」

13일까지 전주 얼화랑.

全北繪畫會의 주제전.

高巍明 金慈炯 成玟洪 柳萬榮 李永鉉 李詰奎 李詰良 李嘉彦 丁美泫씨 참여.

(0652) 郵0323 6.8(금)

대부분이 도내대학 졸업생들로 지역화단을 이루어갈 젊은세대들이라접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들은「중앙시장 사람들」을 주제로한 작품들로 지역사회 속에서의 미술의 역할과 그의미를 나름대로의 주체의식으로 구축해내고 있는 바탕을 보여준다.

작은 골목골목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사회의 바닥을 드러내보이면서도 화려한 현대식 백화점과 호텔을 마주하고 있는 상징성을 함유한 중앙시장의 문화적 각자의 의식으로 규정해내고 있는 이들은 노점상들의 삶의 애환과 가난을 투영시킴으로써 오늘의 물질과 정신의 역학관계, 현실과 희망, 그리고 좌절과 그리움을 강렬한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이지역 한국화의 현대화작업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李詰良씨(全北大 미술교육과 교수)를 비롯 高巍明·金慈炯·成玟洪·柳萬榮·李永鉉·李詰奎·李嘉彦·丁美泫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1990. 6. 4(일)

문화저널
1992년 7월 통권 제50호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을 애정으로 바라보기

「전북회화회」 윤희숙 · 문화저널기자



동양화와 서양화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한국화와 동양화를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인가.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의 전시회에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산수화나 화조화 대신 흙은 터치와 화려한 색채나, 오브제를 이용한 서양화 못지 않은 작품을 접하고는 요즈음의 작품경향에 어두운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 하기도 한다. 그렇다 물론 전통적인 개념의 동양화 작업에 몰두하는 작가들이 많은 수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실험정신이 투철한 젊은 작가들은 굳어 동·서양화를 따로 구분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풍경화나 산수화를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버리는건 물론 아니다. 다만 방법적인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내용을 작품에 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한국화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북지역에 있는 5개 대학에 동양화 관련학과가 늘어나면서 8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더불어 작품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만큼 80년대 중반은 미술사조의 과도기 이고 그에 따라 여러 경향을 띤 유파들이 많이 파생되기도 했다.

미술발전을 저해하는 지연과 학연으로 얽매인 지금까지의 전북 동양화단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올바른 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펼쳐나가기를 다짐했다. 「전북 회화회」는 전북지역의 한국화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북지역 안에 한국화단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0년 3월 만들어졌다. 「전북 회화회」는 연 2회 주제전과 정기전을 열기로 결정하여, 창립 첫번째 행사로 90년 5월 〈중앙시장 사람들〉 주제전을 얼화랑에서 열었다. 〈중앙시장 사람들〉전은 전주의 중심적인 상설시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과 같이해온 중앙시장과 그곳을 둘러싼 주변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두번째 주제전 「전북의 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각자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산수화라는 이름으로 숭하게 그려진 그런 통념의

「전북회화회」가 여느 그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모임이 단순히 전시회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도내에만 수많은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는 곳은 드물다. 「전북회화회」가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오는 것은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함도 있지만 작품에 좋은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기 위한 고민의 장으로서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93 전북회화회 활동계획

▲ 제2차 정기 세미나

- 주제 : 모악산을 찾아서
- 일시 : 93년 10월 24일(일) 후 4시
- 장소 : 전북회화회 회의실
- 발제 : 고 재 명

* 비 회원의 참여도 적극 환영합니다.

▲ 하반기 정기테마 작품전

- 주제 : 모악산을 찾아서
- 일시 : 93년 11월 30일~12월 6일
- 장소 : 얼 화 랑
- 작가와의 대화 : 12월 5일(日) PM 3:00

→ 비 회원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고 그들의 독자적인 감성으로 이땅을 감싸 안으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특히 「전북의 산하전」은 전시 첫날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작가가 작품을 제작한 의도와 감상자가 바라보는 작품의 시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모두 두차례 가진 정기전은 91년 3월과 올 6월에 회원들이 참여하여 주제전과는 다르게 작가들이 각자 그들의 고집대로 지속해온 작업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정기전은 회원들의 독특한 작품경향을 통해 한국화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전북회화회」가 여느 그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모임이 단순히 전시회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도내에만 수많은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는 곳은 드물다. 「전북회화회」가 지속적을 모임을 이끌어 오는 것은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함도 있지만 작품에 좋은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기 위한 고민의 장으로서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지리산에서 가진 「전북회화회」 하계주제토론회에서는 회원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필드만이 쓰고 김춘일이 번역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한 발제와 슬라이드 상영, 그리고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전북회화회」가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작업은 「전북회화회」 미술지를 발간하는 것이다. 회지 형식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미술지에는 미술계 소식과 미술교양을 높이기 위한 논문이나 행사안내 시평 등을 내용으로 담아 전북회화회는 물론 다른 모임들의 회원소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전북 화단의 흐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 안건이 제시된 건 지난해 10월 이지만 아직껏 실현되지 않아 항상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북회화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영헌씨는 전북화단의 열악한 환경의 하나로 미술평론의 부재를 꼽는다. 훌륭한 평론가가 훌륭한 작가를 만든다는 말처럼 이지역의 화단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작품활동을 독려해주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훌륭한 평론가가 훌륭한 작가를 만든다는 말처럼 이지역의 화단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작품활동을 독려해주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 6월, 대성화랑에서 정기전을 무사히 마친 「전북회화회」는 9월과 10월 사이에 가질 세미나와 12월 초에 가질 주제전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올해 반드시 내기로 한 「전북회화회」 미술지를 펴낼 작정이다.

전북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미술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그림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편이고, 감상하는 안목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람객들은 끊임없이 좋은 작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좋은 그림은 본인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서에 맞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는 노력만이 구태의연한 화단에 활기있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전북회화



◇全北회화회원展에 출품된 유선영씨의 「봄바람」(130×130 한지+먹+채색)

'91 전북회화회전

— 1991. 3. 9~3. 14
전북예술회관 —

수묵·채색등 다양한 기법선뵈

全北회화회원展 9일부터 전시

文化 살롱

全北 지역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인 「全北회화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全北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두번째 회원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12명이 참가, 형상성을 견지하면서도 수묵, 채색 등 기법과 주제면에서 다양한 얼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연, 자연을 떠나 적극적인 작업의지를 지닌 청년작가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全北회화회」는 회원들 각자 뚜렷한 개성과 다부진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먹이라는 공통의 매재를 사용하면서도 이들의 작품주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외된 인간, 영원에 대한 희구, 무속 등 폭넓게 걸쳐져 있었다.

지난해 1월 창립이후 「중앙시장 사람들」이란 주제로 기획전을 마련, 삶의 현장을 전해주었던 이들은 대상의 사실적 묘사보다는 일정한 형상을 통해 나름의 이야기를 엮어내고자 한다.

全北大·圓光大·全州大·群山大·全州又石大 등 도내 대학 출신들이 어울린 「全北회화회」는 그간 상대적으로 그룹활동이 부진했던 지역 한국화단에 자극제가 되는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명 참가…자연·인간의 조화 추구

서로의 작품에 관한 비평과 이해 속에서 창작의욕을 높여온 이들은 앞으로 매년 정기작품전을 개최하면서 점차 모임의 규모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 「全北회화회전」 작품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高載明·李錦雀·柳錦榮·池昊洙·金慶雲·成玟洪·朴仁姬·丁美淑·李永姬·金恩珊·田相淑·李錦珍·金慈珊·文順貞 등이다. 전라일보. 91. 3. 9(토)

全北회화회會 회원展
全北예술회관에서

全北회화회 회원전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全北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계속된다.

지난해 6월 주제연립전 '중앙시장사람들'을 열어 크게 주목 받은 全北회화회는 이 지방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한국화 신예 미술그룹 중의 하나로 이번 연립전에도 특색있고 개성있는 회원들의 대표작들이 출품된다.

현대 수묵화의 기법을 살려 지난해 중앙무대에서도 호평받은 바 있는 한국화가 李錦雀교수(全北大)의 '無題'를 비롯 회원 대표작 다수가 걸린다.

참여작가로는 高載明, 李錦雀, 柳錦榮, 池昊洙, 金慶雲, 成玟洪, 朴仁姬, 丁美淑, 李永姬, 金恩珊, 田相淑, 李錦珍, 金慈珊, 文順貞.



◇全北회화회 회원展에 출품한 作 '無題'.

전북도민일보. 91. 3. 8(금)

20일까지 「全北의 산하」展

全北회화회의 「全北의 山河」전이 8일부터 20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이철량 박인현 고재명씨등 16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라일보. 91. 6. 8(토)

◇全北의 山河전

6월8일부터 20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82—7227)

이지역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인 전북회화회의 작품전.

고재명·김자경·김현경·김경운·문순·박인현·성민흥·유선영·이선영·이철규·이희춘·이철량·지민수·정미현·조돈구·최전숙씨가 참여하는 이 전시회에는 우리가 밟고 이고 살아가는 이땅의 모습을 새롭게 그리고 독자적 감성으로 담아낸 공통된 주제의 작품이 출품된다.

전북일보. 91. 6. 8(토)

전북의 山河전

— 1991. 6. 8~6. 20
우진문화공간

'92 전북회화회전

— 1992. 6. 4~6. 10
대성화랑 —

회화회는 도내 5개 대학출신들로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독특한 한국적 정서를 담아내고자 정기모임 및 세미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중.

주로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의 회원 16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는 80호(작품크기)를 기준으로 해 각 1점씩 지니고 있는 개성을 연출해내고 있다.

전주일보. 92. 6. 4(목)

◇92全北회화회展

10일까지 全州 대성화랑.

全北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젊은 한국화가들이 참여한 92全北회화회전.

고재명·김경운·김경희·김지경·김현경·문순·박양수·성민흥·안순금·유선영·이영현·이철규·지민수·정미현·조현동·최전숙씨등이 참여한다. 전북일보. 92. 6. 5(금)

92 全北회화展

'92 全北繪畫회전'이 오는 4일에서 10일까지 7일간 全州대성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고재명, 김경운씨등 도내 활동작가 16명이 참가 全北회화계의 미래를 진단한다. 전라일보. 92. 6. 4(목)

전북 繪畫회展

○…전북 한국화단의 참신한 신진작가들로 구성된 全北繪畫會가 4일부터 10일까지 전주 대성화랑에서 단체전을 열게 된다.

지난 90년에 결성된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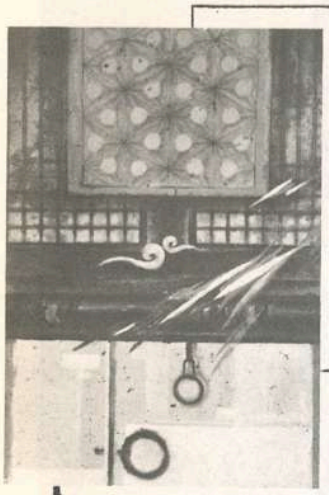
전시

「교동의 표정展」

全北회화회의 교동한옥 보존지역을 테마로한 그룹전이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金洲업화랑에서 업

민다.

· 참여작가는 고재명, 김경회, 김자경, 김현경, 문순, 안순금, 유선영, 이철규, 임미현, 조현동, 지민수, 최숙씨 등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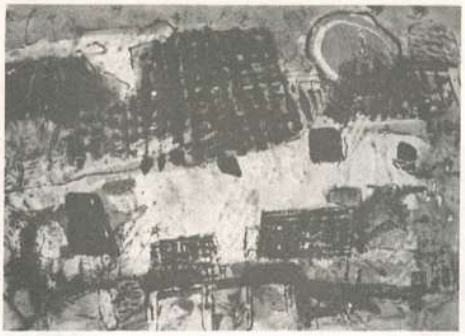


◇세권—교동의 표정展中.

전주일보. 92. 12. 5 (토)

옛모습 잃어가는 傳統美 畵幅 가득

全北회화회 「교동의 표정」 展 7일까지 金洲업화랑



◇全北회화회 「교동의 표정展」 전시作 지민수 「흔적」.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삶이기는 어떤 삶과 정신을 찾는 작업이 젊은 한국화가들의 의욕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북회화회의 회장고재명)가 1일부터 7일까지 전주 영화당에서 갖고 있는 「교동의 표정」전은 한옥마을의 정서의 일부

주제정으로 전시회를 가져왔던 이 모임의 세번째 작업이다.

美術

韓國畫 전공 20~30代 "한자리"

공통主題속 젊은 個性 形象化

90년에 창립, 「중앙시장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품전으로 첫전시를 가졌던 전북회화회는 이듬해의 「전통의 상징전」, 그리고 이번 「교동의 표정전」까지 우리의 정서를 찾고 지키는 작업의

로 일관해오면서 한국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전주 교동의 한옥보존지구는 옛전통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전라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존책이 관과되면서 옛

보존의 모습을 잃기 어려운지 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아내기 위해 이번 주제전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인 고재명씨는 현시변에서는 회원 각자 개성있는 작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통된 주제를 통해 오늘의 젊은 세대가 당아내야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하고 의식을 교류하면서 작가의식을 심화시켜가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전북일보. 92. 12. 4 (금)

전북지역의 각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20·30대의 작가들이 뜻을 함께 한 전북회화회는 그동안 여러번 작품전 뿐아니라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왔으며 실험의식과 전통소재에의 새로운 해석으로 점점 세대간의 벽을 허물어 시각으로 모색해왔으며

이번의 고유한 정서를 찾아내는 독창적인 작업은 전북회화회의 이번 작품전에 다양한 기법과 내용의 작품이 출품돼 오늘의 이지적 한국화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고재명·김경회·김자경·김현경·문순·안순금·유선영·이철규·정미현·조현동·지민수·최전숙씨가 참여했다. (윤)

교동의 표정전

— 1992. 12. 1~12. 7 얼화랑 —

문화저널

제7회 전북회화회전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인 「전북회화회」의 7번째 정기전시회가 5월14일부터 20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전북회화회의 이번 정기전에서는 16일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전북회화회는 이 지역 출신의 젊은 작가들이 신선한 주제의식과 형식을 새롭게 시도 전통한국화의 맥이 뿌리 깊은 전북 화단에 자극을 불어 넣어 왔다. 특히 이 모임은 도내의 각 대학 출신 작가들의 모임으로 자칫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기 쉬운 화단 풍토에 활력이 되어 왔다.

이번 작품전에는 고재명. 김경회. 김자경. 김현경. 문순. 방정엽. 안순금. 이철규.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 정미현. 조현동. 조동현. 지민수. 최전숙씨가 참여했다. 1993. 6 월호

93' 전북회화회전

— 1993. 5. 14~5. 20 우진문화공간 —

전북회화회전

제7회 전북회화회전이 14일부터 20일까지 全州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16일 하오 3시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있는 이번 그룹전에는 고재명 김경회 김자경 김현경 문순 방정엽 안순금 이철규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 정미현· 조양현 조현동 지민수 최전숙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93. 5. 15 (토)

◇전북회화회전

14일부터 20일까지 전주우진문화공간.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인 「전북회화회」의 일곱번째 작품전.

고재명·김경회·김자경·김현경·문순·방정엽·안순금·이철규·임소형·전양기·정문배·정미현·조양현·조현동·지민수·최전숙씨가 참여한다.

전북일보. 93. 5. 14 (금)

「全北繪畫會」展

全北회화회의 제7회 작품전이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주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참여회원은 고재명 김경회 김자경 김현경 문순 방정엽 안순금 이철규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 정미현 조양현 조현동 지민수, 최전숙씨 등 16명.

전시기간중 16일 하오 3시에는 작가와의 대화시간도 주어진다.

전주일보. 93. 5. 15 (토)

全北美術의 어제와 오늘

碧川 羅 相 沐 (韓國畫家)



1. 머리말

우리나라 近來 東洋畫, 書藝分野의 地域的 發展은 서울을 中心으로 湖南에서 發達하였다고는하나 湖南의 境遇 全羅南道를 指針하는 것으로 全北美術은 美術史的으로 볼때 特記할만한 事項이 그리 많지않다.

그러나 正祖朝 蒼巖 李三晩이 獨特한 書體로 有名하였고 怪奇한 性品을 지닌 肅宗朝 毫出館 崔北이 茂朱人으로 傳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考證은 없다. 그리고 石亭 李定稷과 劈下 趙周昇, 肖像畵에 石芝 蔡龍臣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全北은 全羅南道에 비교하여 書畵家의 活動은 低調하였다.

2. 日政時代

1940년전후의 全北美術을 槪觀하면 不毛之地에 가까운 環境이라할까? 당시 韓國人의 生活相은 日帝의 植民下 1次産業의 경우 韓國人의 대부분이 日本人의 小作人으로써 생활의 수준이 下位圈을 차지하였고 敎育部分도 中等敎育에 있어 人文, 實業系列 공히 數를 셀정도였으니 따라서 文化藝術部門에 종사하는 數도 적었으려니와 活躍相이 低調하였으며 美術分野역시 作家의 數도 稀少하였지만 活動狀況도 微微하였다. 다만 鮮展 (朝鮮美術展覽會)이 1944年23回로 終止符를 지었는데 出品部門은 東洋畫, 西洋畫, 彫刻, 工藝의 4個分科였고 東洋畫에 沈銀澤 林愼, 李鍾元氏, 朴崡賢女史가 入特選하였고 西洋畫에 金永昌氏가 入選, 몇분의 日本人이 入特選하였으며 近來와 같은 個人展이나, 團體展等이 흔치 않았다. 당시 日本 東京의 美術學校에 留學한 全北人은 西洋畫의 柳秉熙, 權寧述, 李景薰, 文允模氏가 있었으며 國民所得이 낮아 美術의 享受活動은 不振하였으니 감히 그 당시의 미술개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書藝에 曉山 李光烈, 文人畵의 西堂 金熙舜, 書藝의 雪松 崔圭祥氏等이 이 地方에서 活動하고 있었다.

3. 光復後

1945年 8.15解放과 더불어 政治·經濟·産業等 秩序維持에 상당한 時日이 所要되였고 中等敎育이 점차 擴大되고 大學도 新設하여 美術分野도 作家의 數가 增加하여 質的으로도 向上이 뚜렷하여졌다. 中, 高等敎育에 있어 美術과목이 必須科目으로써 發展하는데 拍車가 加하여졌다. 光復後 서울大學校와 弘益大學校에 美術大學의 新設로 一部卒業生이 本道 中高校美術 敎師로 在職하였으며 1950年代後半경부터는 全州敎育大學에서 美術敎育을

그러나 初創期는 展示場과 所要經費의 不足으로 險路도 컸으나 道當局과 美術人의 協力으로 고비를 넘기었다. 本道民은 數많은 作家를 輩出시켜 本道美術界의 큰틀을 마련하여 他市道展에 比하여 遜色이 없을 程度로 成長하였다.

實施하고있었으며 한편 西洋畵家가 新象會展을 開催하여 西洋畵發展에 寄與하였다.

4. 國展進出

1949年 1回開催한 國展(大韓民國 美術展覽會)은 6.25事變으로 中斷되였다가 1952年 2回를 開催하여 1981年까지 30回로 幕을 내리었는데 出品部門은 東洋畵, 西洋畵, 彫刻, 工藝, 書藝, 寫眞, 建築의 7개部로써 東洋畵에 羅相沐, 宋桂一, 鄭承燮, 西洋畵에 李義柱, 千七峰, 姜大運, 張完, 彫刻에 裵亨植, 金水鉉, 書藝에 宋成鑌, 崔正均, 權甲石, 洪信杓, 李圭鎭, 宋河英氏等이 特選또는 受賞하여 推薦作家, 招待作家, 審査委員, 運營委員等을 歷任하여 本道美術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後進養成에도 힘을 기울려 國展進出에 큰 도움을 주었다.

5. 全北道展

때마침 全北道展創設의 所望이 高潮되여 1969年 當時 李恒儀知事의 決斷으로 道展이 新設되였는데 出品種目은 東洋畵, 西洋畵, 彫刻, 工藝, 書藝, 寫眞, 建築의 7部門으로 24回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初創期는 展示場과 所要經費의 不足으로 險路도 컸으나 道當局과 美術人의 協力으로 고비를 넘기었다.

本道展은 數많은 作家를 輩出시켜 本道美術界의 큰틀을 마련하여 他市道展에 比하여 遜色이 없을 程度로 成長하였다.

6. 美術專門敎育機構擴大

本道에서는 1968年 圓光大學校師大美術敎育科가 認可되여 많은 卒業生이 道內外 美術敎育을 專擔하여 美術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고 그後 圓光大學校에 美術大學이 認可되었고, 全北大, 全州大, 群山大, 又石大學等에 美術科가 新設되여 1992年 現在 美術系在學生數가 2,600余名으로 推算되고 있다.

7. 展示空間으로서의 全北藝術會館建立

展示空間의 必要性은 美術發展과 密接한 聯關性이 있다. 當時 黃寅性知事의 配慮로 美術會館建立基金을 爲한 道內作家招待美展이 1974年 11月 全北藝總畵廊에서 開催하여 基金을 造成하였고 國樂大公演, 舞踊大公演, 새마을寫眞展을 가졌으며 特히 1975年 韓國元老 重鎭作家招待美術展이 서울 國立公報館에서 東洋畵 55点, 西洋畵 98点, 書藝 34点, 計 187点을 展示 基金化하여 當年12月 文藝振興基金과 市·郡 地方費 補助金으로 1977年 臨時藝術會館建物을 買入하였고 1980年에는 垈地355坪 延建坪 1,418坪(地下1層, 地上5層)을 1982竣工하여 本道 美術展示의 空間으로써 美術發展의 核心的 役割을 하고있다. 이 會館建立을 爲하여 道內 美術人과 藝術人의 勞苦는 至大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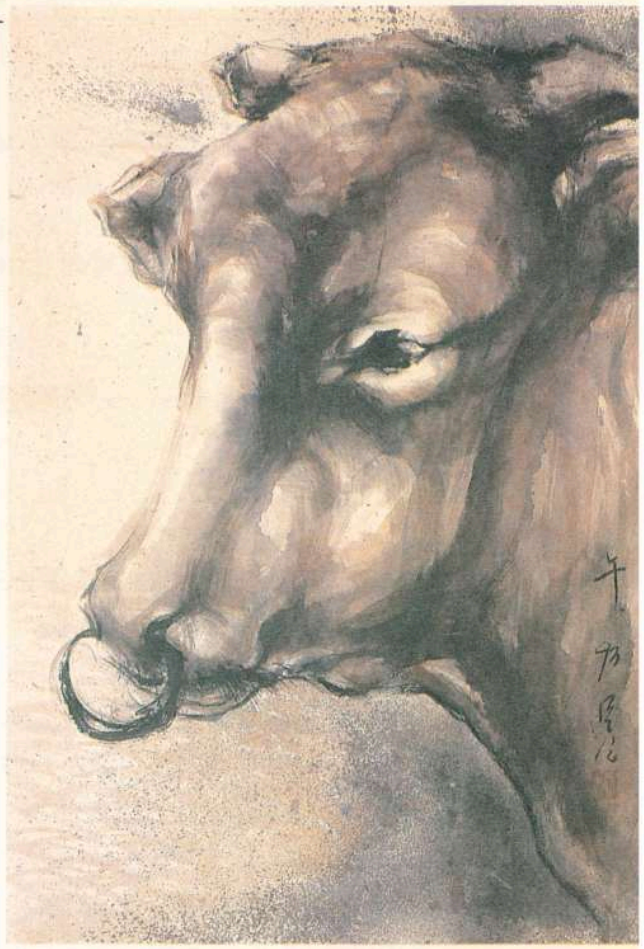
8. 湖南韓國畵三百年展 全北展

1984年 全北道와 韓國文藝振興院의 後援을 얻어 湖南韓國畵三百年展 全北展覽會(推進委員長 羅相沐)은 石芝 蔡龍臣, 墨鷺 李用雨, 碧下, 趙周昇, 石亭 李定稷, 裕齋 宋基冕, 毫生館 崔北, 晋齋 裵錫麟, 柳下 柳永完, 子然 林愼氏等 文人畵, 山水, 花鳥, 器皿畵 等 全北出身韓國畵 98点을 收藏人의 協力를 얻어 當年 12月에 全北藝術會館에서 盛大히 開催하였고 圖錄도 發刊하여 三百年 本道韓國畵의 全貌를 밝히고 後輩들에게 좋은 산敎育을 하였다.

9. 公募展 其他(大韓民國美術大展 圓美術大展 春香美術大展 全國書畵百日大賞展等)

1982年부터 開催한 大韓民國美術大展은 우리 젊은 作家에게 登用의 機會를 주었고 우리 道內에서도 全國規模의 여러 公募展이 있어 美術發展에 貢獻하고 있으며 여러 그룹展, 個人展等이 年中展示되여 美術의 生活化, 美術의 價値創造에 이바지하고 앞으로 文藝中興의 기틀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많은 力量있는 作家의 出現을 期待하면서 끝을 맺는다.

전북회화



소, 수묵담채, 91×61. 4. 1993

'진지한 감정의 진실한 표현이 주는 신뢰'

김은정(전북일보기자)

한 두해 전 쯤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주말쯤이면 매번 들르게 되는 전시실을 돌아보는 중이었는데 전북예술회관에서는 그때 마침 전북회화회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다. 수묵의 새로운 해석, 자유로운 표현과 신선한 실험의식으로 이지역 한국화 발전에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는 단체의 전시회였던 만큼 또다른 기대감으로 전시실을 둘러보게 되었다. 여전히 한국화의 전통기법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젊은(?) 그림에 익숙해져가는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눈에 띄었다. 크레용과 연필을 이용해 소묘한 듯한 크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둥글고 푸근한 느낌의 젖가슴위에 아이가 엄마품에 안겨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그리고 초생달 등등 그런 소재들을 담은 것이었다. 특별히 표현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선한 작가 의식이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닌데 까닭없이 그냥 반가운 그 그림을 보면서 아마도 여성 작가의 그림일 것이라는 느낌을 기억해 두었었다. 그리고나서 이 그림의 주인이 문순이란 주부화가였다는 사실을 안것은 그이의 작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었던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

그이가 작업실 대신 공개한 아파트 거실에는 짧지 않은 동안 아이들을(그는 연년생 딸아이와 이제 돐도 되지 않은 사내아이까지 셋을 두었다) 돌보느라 밀쳐 두었던 그림 그리는 일을 다시 시작한 91년 부터의 작품들이 놓여있었다. 그중에 현관과 거실 사이에 걸린 그 '달밤'이란 제목의 그림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아 저 그림요?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하고나서도 한참동안 어려웠어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 아이가 '난 엄마가 책 읽어줄 때가 가장 행복해'하는 말을 듣고, 문득 내가 무엇을 그려야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딸애 덕분에 숨통이 틔인 셈이예요. 그 첫 작품이 저그림이구요.

문순은 이즈음 그림 그리는 일에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가슴이 뛸 정도로 물색의 변화에 감동스러웠다는 '대아리 情' 그리고 '마이산'과 '農舞' '세월' '線舞'를 비롯한 10여점 그이의 작품들마다에 그는 친절하고 섬세한 설명을 붙여주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의 작품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사롭게 그려진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그려낸 '소' 역시 그이의 가장 진실한 감정과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의 많지 않은 작품 중에는 '소'를 주제로 한 그림이 두개 있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저쪽 '소'는 지난 2월엔가 그린 것인데 그때가 한참 농산물과 쇠고기 수입 개방문제로 농민들의 시위가 치열했던 때일거예요. 글씨를 쓴 띠를 맨 소를 데리고 나온 여의도 시위농민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감당하지 못할 분노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그린 것이어서인지 분노한 소의 모습이 강하지요."

그리고 두번째 그려낸 그림이 바로 여기 실린 '소'다. 이전의 그림에서는 별다르게 느껴지지 않던 자유로운



그림자, 종이, 수묵농채, 116.8×91. 1993

'손보다 가슴으로 그리는 진지함'

이상덕 (전주일보기자)

全北지역 한국화단이 他市道 화단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이란 말을 외부사람들에게 자주듣곤 한다. 그럴때마다 고정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뇌리에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결코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분명 이지역 화단에 자양분으로 열심히 작업에 임하는 젊은 작가들의 독창적인 언어와 작업형태때문 일 것이다.

직업의식으로 전시장을 가끔 찾는 나는 이러한 현상을 고무적으로 느끼지만 얼마전 중앙시장 사람들이란 테마전을 통해 김자경씨의 작업을 만나 그런 의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굳혔다.

비단 이름석자로 성별을 구별했지만 필력과 과감한 연구성등은 강인한 실험의식을 동반한 작가의 작품성의 독특함을 만나는 기쁨을 느꼈다.

특히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지않고 하나의 통일성으로 만나게 하는 김자경씨의 작품은 그림이란 측면과 정신세계 확충이란 작업의식이 동반성을 띠며 진지함으로 표출되고 있다.

비교적 전북화단에 정체기를 겪고있는 채색화에 자신의 과도기적 작품세계를 껴안고 있는 김자경씨의 작업은 한가정의 부인이며 엄마, 또한 교사이며 화가로써의 역할이 철저한 필력의 강인함과 쉽게 미동치 않고 작은 것에 천착치 않으려는 의식마냥 화면을 가득채운 전통색을 그저 자연적으로 풀어놓으면서도 응축되게 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한국적 정신세계를 기본으로 전북산하를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여 능선을 허리, 산마루를 가슴, 정상을 머리등으로 인용, 형상화하는 그녀의 작업은 손으로 그리는 그림보다는 가슴으로 그리는 진지함이 또다른 자기몫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합당한 오채색을 도구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담고 싶어요』라는 그녀의 말처럼 한국인의 정서속에 뿌리깊게 내재되어 있는 또다른 감흥이 화폭에 더욱 빛을 발할것을 기대해 본다.항상 정체하지 않고 발전하려는 그녀의 또다른 역마살(?)의 작업의식이 오늘의 그녀를 내일에 안주치 않게 끔 잡아둘 것이다.

내면속에 피어나는 작업이 항상 튼튼하길 기대하는 나는 그녀의 작업속에서 또다른 감흥을 고대해 본다.

표현, 그러면서도 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섬세하게 담아낸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문순이 갖고 있는 미술에의 인식을 한귀퉁이나마 들여다보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그림을 다시 시작한 이후 2년여동안 얽매여 있던 일상생활의 한부분으로서의 그림이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공유하고 자연과 현실을 함께 인식해가는, 미술의 역할과 힘을 드러내는 그림을 만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확신이기도 했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5년여동안의 공백기를 훌훌 털고 나선 문순의 그림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한국적 정서를 윤기있게 담고 있는 이 '소'에 응집되어 있다면 그이가 앞으로 전개하게 될 진정한 미술세계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짐작케 되는 든든한 신뢰의 연상에 놓여 있다. 그것은 곧 '어떻게·그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그치 지 않고 또한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늘상 골몰하고 있는 문순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기도 하다.



念(전설), 한지에 혼합재료, 140×70. 1993

나의 존재가 이세상의 조그마한 알이기를

조 현동

나의 화실에는 다른 화실처럼 그동안 그린 그림들과, 화구, 책등이 있다. 다른점이 있다면, 마른명태가 건어물 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줄줄이 꿰어 걸려 있기도 하고 여러마리가 한데 놓여있기도하다. 처음에는 명태의 비릿한 냄새가 화실안을 채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한 식구처럼 아무런 냄새도 느낌도 느껴지지가 않는다.

나의 화실에 명태가 많이 있는 이유는 가끔씩 벗들과 기울이는 술자리의 술안주로 삼기위함이 아니라, 몇해 전부터 작품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소재로 명태가 이용되기 시작한것은 친한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처럼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겠다. 나의 집에서 화실로 가는 중간에는 시장이 있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다. 더욱이 내가살고 있는 남원에는 5일장이 열리는 관계로 재미있는 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나태해져가는 나 자신을 추스리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인가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건어물전의 명태들이었다. 꼬챙이에 꿰어 엮어져 있기도 하고, 줄줄이 매달려 있기도 하였다. 자세히 보지않으면 다같은 모습같지만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명태를 보고 재미있기도 하였지만 엮어져있는 명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삶의 굴레에 엮어져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고, 한결같이 입을 벌리고있는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항하며 절규를 하는듯한 환상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고향바다를 그리며 노래하는 듯 했다. 이 명태들이 이름모를 어부의 손에 잡히지 않았던들 넓고 푸른 바다에서 이리저리 오가며 자유로이 살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화실에 도착하여서도 명태에 대한 생각은 한참동안 나의 뇌리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의 작품에는 명태가 그려지기 시작하였고, 명태의 또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로이 인식 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명태하면 먼저 술안주, 밑반찬으로, 술먹고 해장 할 때의 북어국이 연상되기 쉽다. 그러나 명태는 먹거리에서 부터 우리의 생활풍습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집을 지으며 행당을 올릴때도 북어를 매달아 복을 기원하고, 조상님께 제를 올릴 때도 북어는 빠질수가 없으며, 많은 고사를 지낼때도 북어는 빠질 수가 없는 제물이다. 하물며 술을 먹고 속을 풀때도 북어는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 명태는 우리민족의 정신과 습성에 큰 자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인이 명태의 예찬론자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연고로 나의 작품에는 명태와, 五色(赤, 靑, 黃, 墨, 白)과 알의 형태(形態), 단청(丹靑)무늬, 색동, 민화(民畵)가 소재로 자주 나타난다.

새벽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좌절로…

정 미현



공간 Ⅱ. 천에 수묵채색 116.5×91. 1993

기쁨과 고통이 엇갈리듯
그리움과 고독이 공존하듯
내 써늘한 자리에 들끓는 영혼을 누리고서
어둔 밤이 싫어 귀퉁이 저 끝에 앉아있다가
새벽이 부옇게 밝아오기를 기다린다.

바보스러웠다.
그리움 끝에 붓끝을 부비며 열정을 태워버린다.
흔연스레 춤추는 붓가락이 흥에 덜겨운지 내 던지고는
와락 쳐 달려가 손가락을 후벼댄다.

새벽녘 — 작업일기 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6년째 접어드는 작업생활이다.

대학시절 작업해온 먹의 작업을 통해 「먹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고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다」는 현대수묵화 운동의 기본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재료나 소재 기법면에서 강한 표출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먹을 충분히 수용하여 다시 발하는 '천'이라는 재료의 매체를 도입하게 되었다.

줄곧 자연과 인간이라는 접목된 소재로 서로의 공존과 대립을 형상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먹과 채색의 강한 대비" "강한 터치와 선" "부드럽게 선염된 발묵"등을 화면에 어우러지게 하는 작업형식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표현에 몰두해 왔다.

언제나 작품을 마치고 난 후에 나에게 엄습해오는 강한 전율 비슷한 설레임과 심한 좌절감이 엇갈리며 지탱해나가는 나의 작업은 나의 공간에 대고 지르는 **'함성'**, 비벼대는 **'교태'**와 같다.

五色은 陰陽 五行說에서 나온 색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알의 형태는 깨이지 않고 우리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전설(傳說), 전통(傳統), 역사(歷史), 이상(理想)등을 내포시키려 하였으며, 또한 작품에 소재로 자주 나타나는 나비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 주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살아있는 생명체의 의미를 내포하려 하였다. 민화, 단청, 색동이 작품에 자주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려보자는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얼마전부터 나의 작품에는 토분(흙)이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흙은 어릴적부터 가장 많이 접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고향을 연상하게 되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정서를 느끼게한다. 흙은 장난감이 제대로 없었던 나의 어린시절 다른 자연물과 더불어 유일한 놀이감이었고 안식처였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흙을 자연스럽게 한지와 더불어 재료로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명태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습도 명태를 닮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명태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세상에 긴요히 자리하고 있다면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한점의 작품을 위해 내자신을 말려가는 아픔도 희열로 느낄 수 있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아직은 깨인 알의 봉황이기 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조그마한 알이기를 기원해본다.

'94 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월 신입회원 환영모임

2월 동계수련회 및 스케치여행

4월 상반기 정기세미나 및 정기모임

6월 정기 **전북회화회전**
일시 : '94년 6월 15일
장소 : 전북예술회관 1층 1실
규격 : 100호 ~ 150호
작가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됩니다.

8월 하계수련회 및 스케치 여행
제2회 전북회화회 편집모임

10월 제2회 전북회화회 발행

11월 정기 테마전 주제 세미나

12월 **정기테마전** 예정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전북회화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투고와
전화를 기다립니다.

* 연락처 : 우 560-030
전주시 완산구 풍남1동41-2 3층
전북회화 (T. 84-3238)

'93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일시 : 12월 19일(일) 오후 3시
▲장소 : 전북회화회 회의실
- 1년간 활동상황 및 회계보고
- 회칙 개정 및 차기회장 선출
- '94 신입회원 추천 및 영입

인쇄 : 서울정판인쇄사 ☎ (0652) 82-8267. 86-5052

요금별납 전주우체국

님

전북 회화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 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바로 보자는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